

Open Doors

2020. 09. Vol. 221

박해와 선교현장

네팔 *Nepal*

한국전쟁 70주년 북한기도 특집
코로나19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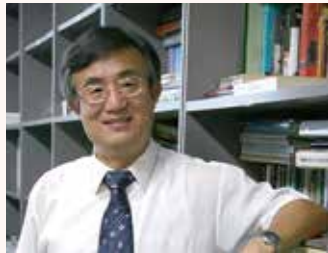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여호와 이레 와 에벤에셀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 이사장/공동대표)

영국의 런던과 중국에 있었던 중국내지선교회 본부건물에 새겨진 글귀이다. 위화단 사건으로 중국내지선교회 소속 선교사 60여 명이 순교한 이후 허드슨 테일러는 여호와 이레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움을 선교현장에서 체험하였다.

얼마 전에 외국인 동역자를 만났다. 그분은 소문 없이 오랜 세월 제 삼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구출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귀한 형제였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 삼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상황과 이분들이 자유세계 나라들로 망명하기를 원하는데 관련된 국내외의 비영리 기구들이 전염병과 지역 당국의 봉쇄정책 등으로 거의 철수한 상황에서 누구도 이분들을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분의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 이런 비상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전 세계에서 갑자기 평상시보다 많은 모금이 이루어지고, 제 삼국 현장의 지역일꾼들이 용기를 내고 온갖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수 백 명을 안전하게 구출해 낼 수 있었다는 간증이였다.

저희의 선교현장에서도 신기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 북한당국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 전 지역을 거의 봉쇄하였는데 잠깐씩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시적이었지만 북한 내부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시기도 있었다. 장마와 홍수 그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북한의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고, 수 십 만의 거주민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들이 갑자기 열림으로 잠시였지만 그 동안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북한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북한에서 도깨비 병으로 불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수 십 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장마와 홍수 그리고 최근에 연이은 폭염 등으로 장마당 물가가 거의 모든 품목이 4배 이상 올라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전염병과 각종 질병 등으로 절망을 호소하고 있다. 평양도 마찬가지로 외부와의 통제 속에서 주민들은 전염병의 두려움과 돈이

있어도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피폐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비록 많은 물품들이 보내질 수 없지만 적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가장 어려운 신자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을 서는 북한교회 신자들은 외부에서의 지원에 감격하며 물품의 양을 떠나서 서로 간의 성도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간증한다.

최근에 한국사회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 세계의 상황도 한국과 유사하다.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 많은 차별과 위협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고난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호하며, 구출하는 선교사역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 출신의 졸업생 목회자들 중에 최근 몇 달 동안 교회의 급격한 현금감소로 사례 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여호와 이레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다. 교인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거액의 헌금을 내곤 한다. 위기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남한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교회 지역지도자에게서 급한 전갈이 왔다. 최근 남한에서 보내어진 풍선속의 각종 물품들과 풍선사태 등으로 북한당국이 애꿎게 무고한 접경지역의 북한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요청이었다. 한국교회는 각종 역경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적시에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부디 믿음으로 앞장을 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한다. 여호와와 승리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

CONTENTS



04



08



14



16



18

04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2

08 박해와 선교현장 - 네팔(NEPAL)

14 현장스토리 1 - 네팔, “코말” 자매 이야기
네팔, 신학생 “리마” 이야기

16 현장스토리 2 - 이슬람국가 브루나이, ‘엘로라’ 자매 이야기

18 사역보고 - 우간다, 151 가정에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20 뉴스와 업데이트

2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캠페인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광고

OpenDoors 2020년 09월호 | 통권 22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 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 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 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최유리 간사
북한선교 _ 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 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2

DAY 5. 아직 여기에, 지하교회로.

국제오픈도어 본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 북한을 위한 “7일 기도” 특집 패키지를 만들어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난 역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5일에는 4대째 내려오는 북한 성도의 강력한 간증을 소개하고, 6일에는 북한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편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인터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하며 이번호에는 4세대에 걸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와 기도를 실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자도 없고
우리도 없는 양떼 같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겨울 혹한의 폭풍 뒤에
죽은 나무 같이 보일지라도...”

-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비밀편지 중에서 -

이것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4대에 걸친 간증입니다. 이 흑암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세대 -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20세기 초 북한 기독교인 1세대입니다.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을 경험하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성경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머물렀고 그는 신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 뛰어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교회 건물들을 건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고 앞장서서 1910년 경 땅을 매입하고 교회 건축을 추

진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교회로 분립하였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교회 반주자 레베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아브라함과 협력하여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여러 교회들을 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선교사들과도 협력하여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K목사가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려서부터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목사로 훈련받고, 또한 후에 신학자가 되어 평양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를 피해, K목사는 교인 일부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K목사가 떠난 후,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교회에 남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맡겼습

니다.

휴전이 되면서, 북한 정권은 1954년, 광범위한 교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돌보던 지역의 교회들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양떼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 당시에 평양에서는 교회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부터 평양에서도 교회에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삭 목사는 평양 전역에 가정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십 번의 설교를 하였고, 성도들은 가정집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마당에서 서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1958년,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거 박해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이삭 목사는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삭 목사는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탄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 정부에 버림받았으나, 천국의 시민으로.

1959년 북한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정권에 알려져 단속에 걸린 크리스천들과, 숨어들어간 비밀 크리스천들입니다.

북한 정권은 1945년 이전과 한국전쟁 직후에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1958년 이전에 확인된 기독교인들을 시골과 탄광으로 추방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들을 감시하고 박했습니다. 추방된 곳에서 크리스천 한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종신형을 살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1958년 이후에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어 돌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찾아

낼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목사는, 추방된 곳에서도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탄광에 있던 다른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삭 목사는 일어나서 아들 야곱을 데리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 야곱이 밖에서 망을 보며 아버지가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박해가 증가하며, 예수의 제자들도 증가하다

북한정권은 탄광으로 추방된 크리스천들이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북한정권은 지도자들을 다른 광산으로 옮겼습니다. 더 험악하고 살기 힘든 산간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출신성분 검사에 의해, 북한정권은 대상자들을, 단순히 재교육이 아닌 발본색원을 위해, 탄광으로 강제이주 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지도자들, 엔지니어들, 일제시대 정치가들, 남한 군대 장교들이 주로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광산은 가스 폭발이 빈번하고, 탄광이 무너져 갭도에 있던 이들이 모두 질식사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이삭 목사는, 추방된 여러 지역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빈번한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그 탄광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이삭 목사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970년대의 어느날, 수용소 보위부원들이 이삭 목사의 집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상당한 양의 성경책과 신학서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삭 목사와 가족들에게 그 책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고, 그 위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후 이삭 목사는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 숨질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3세대 -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악질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일반 성도들로부터도 분리시켜졌습니다. 야곱은 재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악질 반동분자’들은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조부와 부친이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야곱도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집이 수색을 당하던 날, 어린 야곱은 수용소 보위부원들의 감시하에 마당으로 성경책들을 내놓는 과정에서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떨어진 그 책을 재빨리 틈마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성경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의 표지를 벗겨내고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매일 읽으려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삭 목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인 레베카 사모가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야곱은 전도자로 성장해갔습니다. 레베카와 야곱의 헌신을 통해, 지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감시와 억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야곱 가족을 수십년간 감시해오던 한 당 간부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각혈을 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고, 아내와 딸은 어디론가 떠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집을 찾아가 그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병든 몸을 씻겨주고 죽을 먹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을 받은 그 당간부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디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복음에 대해 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와 함께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주간도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당간부는 야곱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당에, 수십년간 야곱을 감시해왔지만 아무런 범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와 딸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당간부도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공산당원 자격을 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되자, 이상히 여겨서 야곱의 출신성분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그가 ‘악질 반동분자’로 분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곱이 자기의 부친과 조부가 모두 악질 기독교인으로 공산당에게 처형당했는데도 공산당 간부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아준 것이 이상했습니다. 자기를 수십년간 감시하도록 보내진 공산당 간부를 씻기고 먹이고 간호해준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야곱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가 궁금했고, 결국 야곱에게 복음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4세대 - 조셉 이야기

조셉은 야곱의 친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입니다. 야곱은 1990년 경에 조셉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셉은 그것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야곱 또한 자기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자기 손에 맡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헌신에 감

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시기 동안에도, 지하 교인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행20:24) 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 자기들의 음식을 나누어주었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돼지를 도살할 경우 당에 바쳐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야곱이 돼지껍데기를 요리하여 숲속에 있는 성도의 집에 가져다 주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그 가족은 바닥에 누워있었고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돼지 껍데기를 잘라 솥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적은 양의 음식들을 가지고 그 가족을 돌보고, 일주일 정도 그 가족이 기력을 회복한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조셉은 지하교회에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신앙이 보위부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다른 지하교인들 이름을 대라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교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차라리 자기 혼자 죽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조셉은 풀려났으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그의 가족은 산간지대로 추방되었습니다. 거기서 조셉은 박해받는 성도들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조셉은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전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셉은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할지 상상해보십시오.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남겨 놓으신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악의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년간, 북한은, 전세계 크리스천 박해지수 순위를 보여주는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최악의 박해국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약 200,000명에서 400,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추산되는데, 그 중 약 50,000~100,000명은 수용소에 투옥되었거나 외딴 산간지대로 추방당했고, 나머지 성도들은 완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4대에 이르는 성도 이야기에서 보듯이,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하나의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발각되면 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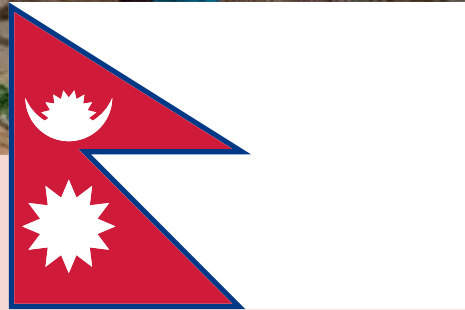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박해받는 그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추방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위해서, 그들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탈북할 수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자신을 훈련하고 북한의 문의 열리는 날을 위해 준비하며, 또한 북한복음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한 성도들을 위한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들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계3:2) 하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네팔

Nepal



인구 : 29,942,000 명

주요 종교 : 힌두교(66.5%), 불교(11.5%), 부족종교(12.9%)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1,279,000 명(4.3%)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32위, WWL2019- 32위

기독교박해 지수 : 64점

주 박해 요인 : 종교적 민족주의, 부족공동체의 적대감

네팔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네팔에서 힌두교는 BC 500년~300년 사이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국교였다. 이렇게 오랜 ‘힌두 왕국’이던 네팔은, 2006년 대규모 민주주의 시위로 가넨드라(Gyanendra)왕이 의회를 부활시키고 주권을 국민에게 양도했다. 곧 의회는 만장일치 투표로 네팔이 세속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힌두 왕국’의 지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10년간 이어오던 마오이스트(모택동주의) 반군과도 정전 협정이 체결되어 내전이 종식되었고, 2008년 5월에 새로운 헌법의 제정과 함께 왕정은 폐지되고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네팔에서 힌두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어느정도 박해를 받는다.

우선 공동체 단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힌두교도는 조상들의 종교에서 이탈한 것으로 간주되고 심한 압박 하에 놓인다. 개종한 이들과 개신교회 교인들은 가족, 친지, 지역사회, 정부당국으로부터 압박을 경험한다. 공동체를 넘어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박해는 네팔을 다시 힌두 국가로 되돌리려는 힌두 과격파 단체들로부터 온다. 이들은 인접한 인도의 힌두트바 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때때로 힌두교 과격파자들은 크리스천들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기도 한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차별받지 않는다.

2015년 개정된 새헌법은, 개종을 권유하거나 개종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8월에 통과된 ‘

반개종법’은 개종시키는 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또 개종행위에 대해 중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준비중이다. 지난 2년간 힌두 과격파자들이 비힌두교도들에 대한 활동들을 증가시켰다. 앞으로도 힌두교 극단주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박해가 증가할 것이다.

※ 2015년 4월, 5월에 일어난 두 번의 대지진으로 약 9,200명이 사망하고 GDP의 50%에 해당하는 100억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뉴스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때 파괴된 사원들의 재건에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파괴된 교회 건물 재건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네팔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신앙을 서면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힌두교 과격파들의 눈에는 전도행위와 마찬가지로 비춰진다. 처음에는 시골에서는 집안에서 허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가 네팔 전역에 이슈가 되었다. 전에는 개종한 이들을만 공격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크리스천 메시지들이 타깃이 되었다. 소셜미디어가 크리스천들에 점점 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힌두교인이 개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영향으로 네팔의 힌두교도들도 전도행위를 하는 크리스천들과 개종한 이들에 대해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힌두교 과격파들에게 전도 자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신앙을 언급하는 것도 위험해졌다. 오직 외국인 크리스천들만 이런 점에서 위험하지 않다.

• **가정 영역** : 힌두교와 불교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없다. 크리스천들이 개인소유의 땅을 매장지로 사용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네팔에서 죽은 이를 매장하기 위해 인도까지 간 가족들도 있다. 세례식은 힌두교를 떠나 크리스천이 되는 마지막 징표이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강한 반대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례를 삼가하거나 비밀리에 받는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비밀리에 할 정도로 압박이 심하다. 모든 교육제도에 힌두교 관습과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어 크리스천 아이들이 힘들다. 한 예로 학교에서 힌두교 여신에게 매일 기도 암송을 한다. 크리스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거나 양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나 기독교 기도를 가르치면 강제 개종으로 고발을 당한다. 한 사회사업가 크리스천이 케어홈에서 아이들을 기르다가 체포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 **지역공동체 영역** : 모든 크리스천 활동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감시를 당한다. 감시자들은 대부분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나 때로는 힌두교나 불교 과격파자들이다. 정부 공무원들도 교회활동을 감시하고 경찰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 크리스천들 특히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자주 협박을 당한다. 가정교회 모임들은 방해받거나 제지를 당한다. 미혼 크리스천들은 전통의식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서적 괴롭힘을 당한다. 경찰과 지역 위원회는 자주 크리스천들을 소환하여 심문을 한다. 교회 활동들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시골지역에서 힌두교도들은 크리스천이 공동체 마을 모임이나 공개 석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지역공동체로부터의 배척으로 느껴진다.

• **국가영역** : 네팔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세속국가이지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7년 8월에 발효된 새 헌법은 또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윤리에 반하는 종교행위를 금





지한다. 이 조항은 소수 그룹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영 미디어는 크리스천들에 적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노골적으로 반기독교 선전을 하거나 증오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단체들을 돈과 거짓 약속으로 순진한 시골주민들을 유인하는 자들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개종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미디어의 보도 경향이 크리스천들을 규정하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도록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보도는 또한 국제 언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도 선택적인 보도로 매우 왜곡된 이미지를 만든다) 기독교 NGO들이나 기독교 정치 단체들은 비윤리적인 개종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씌워져 당국의 방해를 받는다. 최근에 NGO들에 관한 새 규정이 도입되어 프로젝트마다 승인을 받게 되었다. 당국이 보기에 개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프로젝트이든 금지시킬 수 있다. 또 기독교 기관은 허가신청 문서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교회영역** : 네팔에서는 교회에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회 재산은 개인 명의 또는 NGO 명의로 등록될 수 있다. 교회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교회들은 교회 건물 밖에서 기독교적 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지난 몇년간 점점 증가하는 힌두교적 적대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이전에 가능했던 실외 활동들을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교회건물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

고 권고한다. 기독교 NGO들과 다른 사회복지 단체들은 심한 규제 아래 들어갔다. 특히 구제사업에 압력이 집중된다. 개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모든 단체 문서에서 기독교적 언급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창립사에서 그 사회사업단체를 설립한 기독교공동체 이름도 빼라고 요구한 예들이 있다. 개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따라서 개종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금지된다. 또한 법적인 면을 떠나서, 교회가 개종한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반대압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WWL2020 네팔 박해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1 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2 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15 명
공격받은 교회 수	7 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2 건

WWL2020 기간 박해 사례

- 2018년 11월4일, 4명의 크리스천 여성이 네팔에서 체포되었다. 그 중 2명은 일본인이었고 죄목은 달리트 계층 사람들과 유목민 몇명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들이 축호전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의 활동을 영상에 담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했다.
- 2019년 3월15일, 한 목사(Dhruk Kumar)가 오토바이를 타고온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었다. 그는 정글 속의 격리된 장소에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 2019년 7월23일, 한국의 73세 조유상 선교사가 네팔 현지인을 개종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주간 구금된 후에 1,3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또한 비지니스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를 오용한 혐의도 체포 사유였다.

네팔 개신교회

1628년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Juan Cabral)로, 기독교전파를 허락하는 동판을 수여받았다. 그후 1661년 벨기에 선교사와 오스트리아 선교사가 들어갔으나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더 장기적인 선교의 시도는 1715년, 로마카톨릭 카푸친 형제회 신부들이 카투만두에 선교본부를 세운 때부터이다. 카푸친 신부들은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박타푸르와 파탄(랄릿푸르)에서 주민들과 함께 54년 이상을 살며 선교활동을 했다. 그러나 1769년, 프리트비 나라얀 샤 국왕이 이들과 함께 새로 개종한 57명의 기독교인들을 인도로 추방했다. 그후로 1950년까지 네팔에서 선교사의 입국은 금지되었다.

1950년 초에, 선교사들은 개발사업, 교육, 보건 분야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교회들이 네팔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장과 함께 박해도 늘어났다. 1980년대에 수백명의 네팔 크리스천 리더들이 투옥되었다; 많은 저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네팔을 떠나야했다. 그 후 1990년 이후로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해 교회가 어느정도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 2006년에 다시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과 더불어, 특히 네팔이 2008년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국가가 된 후에, 다양한 개신교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영역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국가공휴일이 되었다. 1951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없었으나, 10년 후의 인구 조사에서 458명이 기록되었고, 40년 후에는 102,000명이 나왔다. 2011년 조사에서 이미 37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수치가 엄청나게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WCD(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가 추정하는 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분명한 점은 네팔에서 크리스천의 수가 놀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네팔에는 8,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다. 달리트(불가촉천민) 계층과 키라티 족과 같은 소수 그룹들이 특히 기독교로 많이 왔다. 네팔 기독교연합에 의하

면, 전체 기독교인의 60%가 달리트 계층이라고 한다.

네팔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5,200명 (0.4%)
카톨릭	7,400명 (0.6%)
개신교 기성교단	295,000명(23.1%)
독립교단	961,000명(75.1%)
무소속	11,100명 (0.9%)
이중소속	-270명 (0.0%)
합계	1,279,430명(100%)

네팔을 위한 기도와 후원

-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쫓겨나는 네팔의 새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교제가 이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네팔은 점점 더 인도와 같이 되어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영향력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성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오픈도어는 네팔에서 그동안 아래와 같은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대부분 중지되고 긴급구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님께서 지혜와 창의력을 주셔서 필요한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달사역 : 성경, 어린이성경, 소책자, 훈련교재, 주일학교 교재
 - 훈련사역 : 박해대비 훈련을 비롯한 그룹별 훈련-목회자, 여성, 청년, 어린이, 가정
 - SED사역 : 생계지원, 지역개발, 성인 글자교실, 직업훈련, 박해받는 성도 긴급구호
 - 옹호사역 : 법적 변호, 법률세미나, 박해피해자를 돕기 위한 신속 활동팀 파견
 - 기타 특별 프로젝트



네팔 오픈도어 사역



7월말까지 네팔에서는 5,500명(11,00가정) 이상에게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크리스천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정부의 구호품 배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이러한 크리스천 가정들에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한 목회자의 코로나 긴급구호에 대한 감사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네팔의 외딴 여러 마을들을 방문해 47개 넘는 가정들에 구호품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걸렸네요. 날씨는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운 지역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문순 기후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는 다 진흙탕입니다. 도로상태가 극도로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가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공활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과 그 공급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또 네팔 크리스천들을 기억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여기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경제적 지원

네팔, “코말” 자매 이야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주세요!”

아래는 코로나19 사태가 오기전, 작년 말에 전해온 네팔 시골의 크리스천 코말의 소식입니다. 네팔 시골에는 이와 같이 차별과 소외와 가난으로 고난 당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생계를 돕기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처했을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나눕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네 명의 아이들이 기독교를 믿기로 작정했을때, 우리는 유산상속에서 제외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왕따를 당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관계를 끊었어요." 라고 코말은 오픈도어 파트너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말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졌다. 코말은 말한다. "우리 친척들이 우리를 무시했을때, 우리 큰 딸이 그들에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거라고 용감하게 대답해서 나도 놀랐어요."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다; 코말의 남편이 폐결핵에 걸린 것이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결국 살지 못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코말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 있게 말한다,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남편의 죽음 이후로, 코말은 더 심한 차별을 당하고 고립되었다.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 교육수준이 낮고 너무 가난해서 생계수단이 없었다. 그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모두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 코말은 자기가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오픈도어 파트너에게 털어놓았다: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나한테 아주 적은 돈 한 톨도 빌려주기 싫어했고요, 매일 품을 파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모자라지 않은 때가 없었죠. 음식 구걸을 다녀야했던 적도 많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친척이 한 명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물질적 도움도 절대 주지 않았고요. 계속 우리한테 기독교를 떠나서 힌두교



로 돌아오라는 말만 했어요."

코말은 자기가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런 힘든 기간에, 나는 눈병까지 났어요. 가렵고 항상 진물이 났어요 몇가지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혹시 눈이 멀게 될까 봐 너무나 무서웠지요." "그러다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어요. 내 눈을 고쳐 주시면 내가 시간을 들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겠다고요. 그날 후로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 기도 시간도 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셨어요. 내 눈이 완전히 나았어요! 나는 믿음이 자라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걸 더욱 깨달았어요. 나의 고생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코말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마련해줄 수 있었다. 코말은 웃으며 말한다, "나한테 이 작은 가게가 생긴 후에 나와 우리 가족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누구한테 음식 얻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커졌어요."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봉사해요. 큰딸은 주일학교를 인도하고요. 내가 여전히 계속되는 동네 사람들의 왕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 딸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그러면 나도 힘이 생겨요." 코말은 다시 강한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요." 코말은 오픈도어 파트너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 식구를 먹여살릴만큼 경제적으로 자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네팔, 신학생 “리마” 이야기 치유, 자살시도, 탈출, 부르심

리마는 22세의 네팔 크리스천 자매입니다. 리마가 주님께 병고침을 받고서 모든 가족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나 곧 그로 인한 주변의 거부와 가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리마는 신학교에 가라는 부르심을 느꼈고, 가정형편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만, 오픈도어의 도움으로 신학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리마는 천천히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불교였어요. 불교 마을이죠. 그런데 내가 두 살 때 심장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전했고 우리 가족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했어요. 마을에서의 삶은 여러 면에서 서로 의존적인데 배척을 당하니 우리는 더 가난하게 되고 고립되었지요."

리마는 여기서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생활이 어려워지니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고 한 1년간 생활비를 보내오셨는데, 갑자기 우리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선가 우리를 버리셨다는 걸 알았지요... 우리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했으니까요."

리마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 도시로 이주했다. 거기서 리마와 동생들을 위한 기독교 기숙사를 찾았다. 그러나 그 학교는 이름만 기독교이지 아이들을 학대하는 곳이었다. 리마는 그때 일을 말했다. "기숙사 사람들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늘 욕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나에게 모든 허드렛일을 시켰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해야 했고 거기 아이들을 다 돌봐야 했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했어요. 그런 일들을 만족스럽게 해놓지 않으면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 성적이 나쁠 수 밖에 없었지요. 또 기숙사에서 동생들한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고 동생들을 돌볼 수도 없었어요... 끔찍한 생활 속에서 저는 제 삶이 의미없게 느껴졌어요."



리마는 말하면서 감정이 울컥하는 듯 했다. "어느날 밤 내 동생이 기숙사 선생님한테 맞는 걸 봤어요. 동생을 보호하러 뛰어갔다가 저도 맞았지요.... 그날밤 저는 모든 소망을 잃고 죽으려고 독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 않았어요. 그후로 다시 독약은 마시지 않았지만 매일밤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저와 동생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절망적이었지만 어쩐지 하나님이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미래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날, 리마는 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몰래 탈출해 엄마를 찾아갔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의 고생으로 어렵지만 리마는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리마는 신학공부의 부르심을 느꼈고 가정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를 만나 오픈도어와 연결이 되었다. 오픈도어의 후원을 받은 리마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정말 위로자세요. 나는 요한복음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리마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그녀는 강력하게 전한다,

"나는 기숙사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적은 없어요. 내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막아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슬람국가 브루나이, ‘엘로라’ 자매 이야기 “브루나이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요”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 이슬람 샤리아 법이 지배하고, 크리스천들은 극소수만 있는 인도네시아 북부의 작은 나라, 좀처럼 알려지기 어려운 이 브루나이에 오픈도어의 기도팀이 올해 초에 방문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청년 자매가 자신의 신앙과 조국을 향한 두려움과 소망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와서 소개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지?” 이런 질문들은 모든 어린 학생들이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은 아니다. 엘로라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유일한 단 한 명의 크리스천이었다. 그녀는 믿음에 대한 이런 질문 폭격을 계속 해서 받았다. 그녀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어리지만 엘로라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자기의 대답이 담대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위해 누구도 함께 맞서 줄 수 없지만 자신이 강하게 맞서야 함을 알았다.

엘로라의 엄마는 엘로라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다. 엘로라는 주일 학교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웠다.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슬람 과목을 들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녀가 대학을 다닐 때였다. 엘로라가 무슬림 남성을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엘로라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다. 그가 친절하고 좋은 남자라

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매일 밤, 잠을 자기 직전 엘로라는 기도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신앙을 위해 이 관계는 불안정한 것이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소리쳤어요. ‘하나님, 그만 좀 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엘로라는 말한다. 그녀는 이제 25살이 되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보낸 몇 개월 후, 엘로라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1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소통하던 모든 수단을 끊어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해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해였어요. 제가 21살 때죠.”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것을 보았다. 엘로라는 그런 유혹을 직면하며 믿음이 더 견고해진 소수 청년들 중 한 명이다. 슬프게도,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고 무슬림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브루나이에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무슬림과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만 한다.

샤리아 법이 더 강하게 시행되면서, 엘로라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하던 친구들이 이젠 잠잠해진 것이다. 샤리아는 무슬림이든 무슬림이 아니든 브루나이 밖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 외 다른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태어났을 때부터 무슬림으로 보이는 사람들,

전통 종교를 따르는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지된 것이다. 기존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만 허용된다.

“성도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 공식적인 행사에 보내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 몇몇은 더 이상 교회가 자신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해요.” 엘로라가 말한다.

한 목회자는, “기독교 국가’들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브루나이 정부와 이야기해요. 하지만 누구도 브루나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샤리아 법의 ‘포교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라고 통탄하였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 세대 안에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어나라, 브루나이여, 깨어라”

우리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리사는 엘로라를 포함하여, 교회 목회자들, 리더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만나 기도하기 위해 작은 팀을 이끌고 올해 초 브루나이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리사는 브루나이의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 브루나이의 수도)을 관찰하고 느낀 것을 나눴다.

리사는 그곳의 낮과 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낮 동안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진짜처럼 느껴지진 않는 것이다.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실 마스크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밤에는 도시가 흐릿하다고 리사가 말을 이어갔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이나 고층건물이 많지 않았다. “조명이 많지 않았고 도시 전체가 깜깜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는데 모스크였어요. 모스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중심이었어요.” 그 순간, 리사는 마태복음 5장14절 말씀을 기억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일어나라! 깨어라, 브루나이의 도시여!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리사 뿐 아니라, 브루나이에 온 기도팀은 똑같이 느꼈고, 모두가 그날 밤 유사한 기도를 올려 드렸다. “나는 브루나이에 엄청난 일깨움이 있을 것을 기도했어요.” 또다른 팀원의 말이다.

이 기도팀의 경험은 1955년 앤드류 형제의 폴란드 여행을 생각나게 한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의 슬로건을 외치며 노래하며 행렬을 지어 함께 행군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 3장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소망을 주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리사와 팀원들은 하나님께서 브루나이의 성도들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하며 엘로라를 격려했다. 도로는 좁았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브루나이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이에요. 브루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술탄과 정부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주세요.” 엘로라가 말한다.

엘로라는 지역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다. 그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불친절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으로 대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브루나이에 비추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엘로라가 기도를 부탁했다.

우간다, 151 가정에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공식통계만 보면, 우간다에서 코로나19는 이슈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간다 정부는 충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간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령을 어긴 이들 최소한 12명이 경찰의 손에 죽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적 봉쇄조치는 우간다의 MBB(무슬림 출신 크리스천)성도들에게 지독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오픈도어는 긴급구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며, 아울러 우간다에서 7월 마지막주부터 상가와 미용실 등이 문을 열고 택시 서비스가 재개되었는데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밀루 칼룸바는 38세의 우간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번에 긴급구호를 받은 우간다 성도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2006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개종과 함께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자밀루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밀루는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다섯 명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종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밀루의 아버지는 자밀루를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늘 쉽지 않았지만, 자밀루는 일용직 일들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 정원가꾸기, 구제품의류 판매 등의 일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방 한 칸 아파트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합니다. 시끄럽고, 바쁘고, 단순한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간다까지 퍼지면서 형편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분적 봉쇄명령을 내리자마자 자밀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당장 먹을 음식도 충분히 못 구하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들을 도와줄 처지가 못되었습니

다. “이번이 MBB성도들을 도와주기 가장 어려운 때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한 목사님은 오픈도어에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구하러 왔고, 저는 음식과 생필품을 살 돈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되구요.”라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밀루의 가정은 오픈도어가 우간다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품을 전달한 151가정에 들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현지 파트너들이 자밀루의 집을 방문해 메이즈(옥수수), 콩, 소금, 식용유, 양파, 토마토, 설탕, 비누,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몇 개월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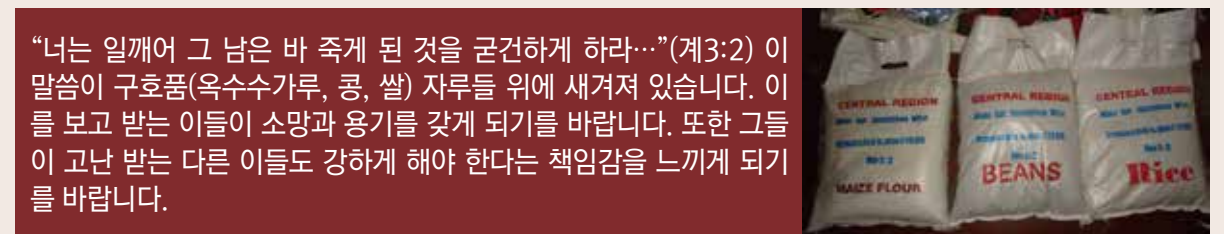
오픈도어는 구호와 함께, 자밀루를 포함한 성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SED)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생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생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받은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 모든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구호품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도움을 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 사진: 구호품을 받아든 자밀루와 자밀루 가족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계3:2) 이 말씀이 구호품(옥수수가루, 콩, 쌀) 자루들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보고 받는 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고난 받는 다른 이들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돌보는 MBB들을 위한 구호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T목사님

사다트는 무슬림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약중독으로 빅토리아 호수가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 그를 목사님이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진: 사다트가 구호품을 받아든 모습

이 4명의 MBB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모두 도울 수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진: 구호품을 받은 이들 4명.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후 감사와 기도 요청

전세계를 놀라게 한 8월4일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레바논에서 크리스천 난민 사역과 시리아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도 놀랐으나 현장 사역자들 모두 무사하고 사무실도 경미한 피해만 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픈도어의 중동 캠페인 '희망의 센터' 중 한 곳인 한 파트너 교회는 폭발 사고 후 바로 희생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파괴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현장사역자들에게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란, 4명의 MBB 크리스천들에게 감옥형 선고



8월1일, 4명의 이란인 크리스천들(Ramin Hassanpour, Hadi(Moslem) Rahimi, Saeede(Kathrin) Sajadpour, Sakine(Mehri) Behjati)이 '국가안전에 반하는 행위', '가정 교회 참석', '시오니즘 기독교전파'라는 죄목으로 높은 감옥형을 선고받아 이란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해왔습니다. 라민 하산푸르는 5년형에, 하디 라히미는 4년형에, 라민의 아내 사에테와 사키네는 각각 2년형을 받았습니다. 4명 모두 라시트 에 있는 한 가정 교회에서 2월에 체포되었고, 5월20일과 21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라시트 시에 있는 혁명재판소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5억 토만(약 US\$30,000)의 보석금을 명령했다가 며칠 후 2억 토만(약 US\$12,000)으로 내렸습니다. 4명 모두 항소할 예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란, 빅터 목사(66세)와 샴미람(65세) 사모 10년/5년 형 확정

빅터(Victor Bet-Tamraz) 목사님은, 지난 2014년 성탄 축하 중에 다른 두 명의 MBB 성도와 함께 체포되어 65일간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그후 2017년 7월에 10년형을 선고받고, 아내인 샴미람(Shamiram) 사모님은 2018년 1월에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쳤다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고 오래 기다려왔는데, 결국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샴미람 사모님은 8월11일에, 8월16일까지 테헤란의 에빈 감옥에 입소하라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발행한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되는 샴미람 사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한 곧 수감 통지를 받게 될 빅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카메룬, 이슬람 보코하람에 의한 어린 소녀 자살폭탄 테러

8월1일 아프리카 카메룬의 북쪽 끝에 위치한 응게체웨(Nguetchewe) 마을에서 한밤중에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이 시작되어 주일까지 계속되었고, 특히 그 중 두 번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해 28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목회자에 의하면, 한 어린 여자 아이가 배가 아픈 척하면서 교회로 들어와 자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명의 크리스천 희생자만 확인되었으나 후에 더 많은 크리스천 희생자가 나왔고, 공격의 주요 표적이 전통 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단체 ACLED(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에 의하면, 보코하람이 2009년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해한 사망자 수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살해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 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보코하람의 저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힌두 과격파들 목사 가족 잔인하게 공격



8월11일 인도 하리아나 주의 파리다바드(Faridabad) 시에서 15~20명 되는 힌두과격파들이 오순절 교회 라제쉬 굽타(Rajesh Gupta) 목사 가족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라제쉬 목사가 아내와 딸과 함께 한 성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날카로운 흉기들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목사님 가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했고, 상기타 사모는 손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라제쉬 목사님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힌두교 과격파들에 의한 크리스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27일에는 편잡 지방의 한 도로에서 개신교 목사가 폭행을 당하고 머리 뒤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를 입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즈(Hajj) 순례 행사 축소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이슬람 최대 순례행사인 하즈(Hajj)가 지난 7월28일 저녁~8월2일 기간에 열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해외 참가자들의 유입이 금지되고 사우디 국내 거주자에 한정하여 1,000명만 참가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이슬람 순례로, 보통은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참가해왔습니다. 참가비만도 15,000달러에 달하는데 올해 미리 예약한 이들은 여행사들의 부도로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7월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67,000명, 사망자가 2,733명이라고 하며, 이 기회에 이 지역 오픈도어 사역자는 18억 무슬림들의 눈이 열리기를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여러분의 후원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멀리 동아프리카까지 코로나 긴급구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크리스천 마사이 족에게까지 구호식량이 전달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지역적으로 이슬람이 강한 곳은 박해가 있으나 대통령이 크리스천으로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전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을 밝힐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역자 소식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전세계 박해지역 성도들에게 구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긴급구호 후원에 동참해주시요! 감사합니다.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알립니다

-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에 관련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교회는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월간 오픈도어 소식지와 기도월력, 월간 북한개발소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포스트' 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검색하시면 주간 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WW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주간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 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 을 드립니다.
- ▶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